

##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21세기의 첫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세계정세의 혼탁함에 떠밀려 인간적인 따뜻함마저 상실되고 있는 요즘 환경관리에 유독 열정을 쏟고 있는 하이트맥주(주) 전주공장 환경관리팀장이자 전북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박전수 회장을 올해 마지막 표지인물로 만났다. (편집자 주)

표지인물 대기자는 많다. 환경보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 많다는 이야기이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본지의 성격에 맞아야 하고 환경관리에 있어 비중이 큰 사람을 찾아야 하는 편집부는 늘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된다.

올해 표지인물로는 환경관리인 출신의 순천제일대 허관 교수에서 시작. 환경실무에 능통한 대구시환경시설공단 양용운 이사장, 복성해 생명공학연구원장, 심재곤 자원재생공사장, 권형기 환경산업협회장, 손희만 낙동강환경청장, 김도철 대한민국환경관리장 금강대장, 이석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김진우 삼보이엔텍 사장, 윤오섭 교수, 류지영 원주지방환경청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환경보전에 있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의 환경관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이들과의 만남이 적었

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학문적인 환경도, 정책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에 기여하는 음지속의 환경관리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환경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영세사업장 기술진단을 비롯 환경관리인협회를 이끌며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열정인 전북환경관리인협회 박전수 회장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업적과 공이 많으니 선정은 쉬웠으나 문제는 그였다. 한사코 인터뷰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박전수 팀장.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란단. 모든 환경인이나 타 지역협의회장



도 그 만큼은 한다는 것이다. 표지인물 그 좋은 인터뷰(?)를 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래도 편집부가 어디 그냥 편집부인가. 갖은 회유와 설득을 통해 어렵사리 인터뷰는 이뤄졌다.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반납하려는 그를 보며,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환경관리인들에게 양보하려는 겸손함이 보였다.

인터뷰 내내 환경단체의 나아갈 방향, 환경정책, 관리인들의 자질 등을 쏟아내는 그는 다방면의 젊은 환경관리인이었다.

**하이트맥주(주)는 어떤 회사이며, 박 팀장님의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하이트맥주(주)는 1933년에 국내 최초 맥주회사인 조선맥주(주)로 출발하여 1998년도에 하이트맥주(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강원공장(홍천), 마산공장(경남), 전주공장(전북)에서 우리나라 대표 맥주인 하이트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은 1989년도에 준공되어 천연 암반수를 사용한 하이트맥주와 엑스필맥주 그리고 “퓨리스” 생수도 생산하고 있으며, 환경팀(팀장 박전수)에서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와 직원들의 환경교육 등 사업장 환경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 대상의 제품과 관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물을 사용하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큰 업종이죠.

**기업의 환경관리와 전북환경관리인협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무엇인지요?**

회사 일과 환경관리인협의회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회사일에 전념하면서 원가절감, 공정개선, 직원 교육 등에 주력합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인협의회 일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한 임원들을 중심으로 역할분담과 사명감으로 환경관리인들에게 현실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자들에게 동기부여와 목적달성 후

비전을 정확히 인식시켜주어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북돋아 주는 것이 리더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예를 들면 성과급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 제공, 전북도지사를 비롯 환경부장관상 등 권위 있는 상을 추천해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6명이 해외여행과 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저한 성과급에 따른 인센티브이지요.

협의회에서는 전북도지사상 및 환경부장관 표창을 20명이 수상할 수 있도록 추천했습니다. 환경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문화가 형성될 때 환경보전이 빨라질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어느 지자체보다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의제 21, 환경기술지원 같은 것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관리가 철저한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을 통한 동기부여로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날, 협의회 정기총회, 기술세미나, 환경기술 지원단활동 등 환경관리인들의 행사는 전라북도도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먼저 관심을 가질 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직적인 체제에서 수평적인 관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지요. 환경마인드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연계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업장 환경관리인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도와 환경기술지원단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관련법의 준수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나 부당한 단속기관의 행위 또는 환경관리인들의 직무능



력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 실시,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연구협의위원, 지방의 제21(푸른약속 전북21) 추진협의회의 운영위원으로 기업의 환경관리 문제점과 기업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

쟁력향상을 위해 주민과 행정, 기업사이에서 기업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NGO단체들과도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관련법 재·개정시 의견 제출과 전국환경관리인들의 단체인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방향 등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사명감으로 합니다.

환경분야는 하고자 하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 보람도 크죠. 특히 환경관리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지역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전북협의회는 모든 임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보면 보람과 노력에 대한 댓가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을 연합회 정기총회 및 창립기념행사를 전북에서 주관하셨는데 행사 개최 의미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7일에 전국 환경관리인들의 모임인 (사)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제16차 정기총회를 전북에서 개최한 것은 전

북협의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사들과 본 협의회의 임원, 그리고 전북지역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준비한 전국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보니 단체의 위상도 올라가고 회원사도 대폭 늘어섭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환경정책 수립시 입안에서부터 실행, 결과와 평가까지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부여받았으며 정부의 모범환경관리인 추천권과 환경관리인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동북아시아 환경보호 세미나” 참석에 본 협의회에서 2명이 선발된 것도 의미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임원들의 봉사정신과 행정기관과의 수평적인 업무체제가 원동력이었다고 봅니다.

**최근 발간한 “전라북도 환경편람”의 주요내용과 효과는?**

환경기술정보총람은 연합회에서 발간하고 있지만, 지역여건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지역환경정보 자료들을 현장 환경관리인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1년여 기간에 걸쳐 준비한 자료집입니다. 많은 비용과 자료수집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와주신 분들의 덕택으로 무료로 도내 전 사업장에 배포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기능과 조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총체적인 환경분야 현황, 환경관련 전문업체들의 내용, 법적 보고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일선 환경관리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환경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마음가는 곳에 몸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시절(화학전공)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 덤으로 환경공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사 연구소 분야에 입사하였는데 어느 시기에 사회적으로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회사에도 환경팀이 구성되었습니다. 1989년도 하이트맥주 전주공장이 준공되고 난 후 환경팀으로 발령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보고



물고기가 물 만났다고들 합니다. 하하하.

**그 뜻은?**

환경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연구소에서 실험하다가 환경관리 현장부서에 투입되었을 때 정말 기뻐합니다. 초창기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현장으로의 발령은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었죠 이것의 극복을 5m가 넘는 폭기조에 잠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중요한 장비가 폭기조에 떨어져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직접 들어가서 견져내 무마시켰던 일이지요 저가 한 수영하거든요. 그일이 있은 후부터는 친해지고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하하 몸으로 때운 환경관리이군요.**

**요즘 환경관리인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직도 환경분야를 기업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지금만 지출되는 파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 환경관리인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상사가 부담스러워하는 업무들만 취급하다보니 우선순위에 밀리고 위축되어 능력 발휘를 다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현명하게 전달하는 테크닉을 터득하여 스스로가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부 위치라면 소신없는 에러베이터 역할만 하지말고 주어진 환경속에서 슬기롭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발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고 벌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드는 것처럼 주어진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옥석이 가려지므로 우리 환경관리인들은 전문지식과 함께 테크닉을 함유하여 조직내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는 인내와 끈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모르는 박전수는?**

글쎄요 무슨 일이든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이 목적이라면 어떠한 여건속에서도 중도포기보다는 돌아서라도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보낸 오늘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란 문장을 항상 암송하고 다니면서 순간 순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훑쳐봅니다. 연합회 홈페이지도 살살이 뒤져보고 참고로 우리 환경관리인연합회의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emr.or.kr> ). 많이 애용합니다.

**연말에 술 한잔 해야할 것 같은 사람과 이유는?**

12월 11일 전북환경관리인협회의 제22차 정기총회 때 환경기술지원 사례발표도 함께 하는데 전북지역의 환경공무원과 환경관리인들이 함께 모입니다. 1년 동안의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새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이니 만큼 "주량은 역량이다"란 각오로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다는 일이 있으신지요?**

회원사 환경관련 부서 한 곳이 한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혼자보다는 한 부서가 책임지고 사회환영에 기여한다면 좀더 빨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연합회에서도 꼭 동참하겠습니다. 타 지역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들께 리더자의 노하우를 한가지만 전해주시다면?**

전북지역 1, 2, 3종 사업장은 90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원사는 130개사가 넘습니다. 이는 4, 5종 사업장과 환경전문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상호협조관계가 형성돼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환경관련역량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원활한 유기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협의회 관련 많은 행사를 통해 홍보를 하는 것 또한 사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일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큼니다.



[전북협의회가 주관한 2001년 연합회 정기총회 모습]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연합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법이 자주 바뀌는데 현실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법 제·개정시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열린 행정이 아쉽습니다.

리에서도 프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한다는 일이 전 사활을 걸고 있는 그는 진정한 환경전문인이었다.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의 환경관리외에 더 폭넓게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 회 고

### 【 환경평가사 특강에 대한 안내 】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환경평가사 자격시험이 노동부 국가기술 자격법에서는 보류되고, 환경부에서 개별법으로 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교육 희망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회원들은 연합회로 문의 바랍니다.

연합회 : (02) 852-2291